



기전대, 진로취업캠프 개최... 참가자들 '호응'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7~8일 1박 2일 일정으로 군산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재학생·졸업생·지역 청년을 위한 '2025 진로취업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고용노동부와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진로취업지원센터, 혁신지원사업단, 혁신융합캠퍼스가 공동 주최해 지역청년 및 재학생·졸업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된 것으로, 전액 무료 합숙형 프로그램이다.

첫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캠프는 △전문가 특강(역량개발연구소-진로 자존감 특강) △진로보드게임(드림스컬퓨터 카드 및 커리어 로드맵 구성 프로그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면접 체험 등 실전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 참가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어 2일차에는 취업발탁출제임을 통한 취업 준비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진로 방향성을 탐색하는 기회를 갖는다.

조덕현 산학협력처장은 "참가자 모두가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는 취업 캠프인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모든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단순 강의 중심이 아닌 소통·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가자 전원에게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개별 맞춤형 진로상담 및 취업 컨설팅을 포함한 후속 연계 프로그램(졸업생특화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김제경찰서, 베스트 자율방범대 인증패 수여

김제경찰서(서장 박승준)는 2025년 상반기 베스트 자율방범대로 교월동 자율방범대를 선정하고 지난 6일 월촌지구대에서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인증패 수여는 공동체 치안 활동에 앞장선 우수 자율방범대의 공로를 격려하고, 민경협력치안 강화를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경찰서장, 월촌지구대장, 교월자율방범대원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교월동 자율방범대는 상반기 동안 주기적인 야간 순찰, 입석 줄다리기·교월동민 축제안전요원 활동, 청소년 비행 우려지역 집중 순찰,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활동 등 지역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날 수여식에서 박승준 경찰서장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이야말로 우리 공동체 치안의 중심축"이라며 "앞으로도 자율방범대와 함께 안전한 김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증패를 수여받은 교월자율방범대 이상우 대장은 "이번 베스트 자율방범대 선정은 저희 대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은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주민 곁에서 묵묵히 안전을 지키는 동네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김제경찰서는 하반기에도 활동 우수 자율방범대를 선정 격려해 자율방범대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력치안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학생 중심 프로젝트로 진로설계·미래역량 키운다

고창교육지원청, '2025 글로벌 해외사문화탐방 성과보고회' 성황리에 개최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이 주관하고 고창군청(군수 심덕섭)이 지원하는 '2025 글로벌 해외사문화탐방 성과보고회'가 지난 6일 고창 참예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보고회에는 미국과 캐나다 일원을 탐방한 중학교 3학년 학생 35명이 참여해 조별 프로젝트 발표, 탐방 영상 상영, 체험 소감 공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 성과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고창 관내 중학생을 비롯해 인솔 교사, 학부모, 군청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연수에서는 탐방 기록 자료와 사진, 탐방 전 나에게 보내는 엽서 전시가 함께 진행되어 참가자 모두가 생생한 탐방의 순간을 되돌아보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전시를 통해 학생들의 성장과 배움의 여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해외 탐방의 가치와 의미가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2부 '탐방의 기록, 우리가 남긴 발자취'는 인솔교사 노은혜 교사(신흥중)의 '배움의 여정: 학생 중심 탐방 설계와 그 교육적 의미' 기조 발표로 시작되었으며, 이어 각 조별 프로젝트 결과 발표와 탐방 과제 영상 상영이 진행되었다. 이번 탐방에서 학생들은 의료, 교육, 관광, 문화, 역사, 환경, 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조별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의료 시스템 비교, 한국과 미국 교육에 대한 이해, 나이가아라 폭포 탐방 경험,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 식문화의 다양성과 특성, 미국의 건국 정신과 현재 방향성 비교, 우리의 삶에 미치는 자연환경 영향, 그리고 AI와 인공지능이 미래에 미칠 영향 등을 연계하여 탐구하는 기회를 가졌다.

통합 영상 상영이 끝난 후에는 학생 대표 3명이 직접 체험하며 느낀 소감을 진솔하게 전하며 성장 스토리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탐방 기간 동안 일별 소감과 사진을 정리·편집하는 '글쓰고 1인 1책 만들기' 활동도 진행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키웠으며, 나만의 에세이를 완성하여 탐방 학습의 깊이를 더욱 높였다.

한숙경 교육장은 "체계적인 대외교류를 방문해 강의실에서 특강을 듣고, 재학생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접하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며, "학생들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탐구와 현장 체험이 이루어져 글로벌 시민의식과 미래역량이 크게 성장되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향, 그리고 AI와 인공지능이 미래에 미칠 영향 등을 연계하여 탐구하는 기회를 가졌다.

통합 영상 상영이 끝난 후에는 학생 대표 3명이 직접 체험하며 느낀 소감을 진솔하게 전하며 성장 스토리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탐방 기간 동안 일별 소감과 사진을 정리·편집하는 '글쓰고 1인 1책 만들기' 활동도 진행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키웠으며, 나만의 에세이를 완성하여 탐방 학습의 깊이를 더욱 높였다.

한숙경 교육장은 "체계적인 대외교류를 방문해 강의실에서 특강을 듣고, 재학생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접하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며, "학생들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탐구와 현장 체험이 이루어져 글로벌 시민의식과 미래역량이 크게 성장되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교총, 저출생 극복 릴레이 캠페인 동참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6일 유치원·초·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현장에서 저출생 대응 전북 지역연대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함께 키우는 아이,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저출생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과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전북교총 2030청년위원회(위원장 송민주)도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오준영 회장은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에 교직사회가 따뜻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 속 출산 친화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드림스타트, 두근두근 과학체험 진행

남원시 드림스타트는 관내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 및 건강, 영양, 교육, 문화, 복지 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두근두근 과학체험은 올해 새롭게 구성된 신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체험과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남원에서 출발해서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국립광주과학관에 방문하게 된다.

미래 과학과 항공에 관심있는 아이들에게는 좋은 경험이 되고 취약계층 아동에게 문화체험을 넓힐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과학 체험을 마무리한 아이들은 남원시 복합문화공간인 '피오리움'을 방문하게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평생학습 관계자 교육

정읍시장에인종합복지관이 장애인 평생학습의 질적 성장을 위해 평생학습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4차 역량강화 교육을 마무리했다.

지난 6일 정읍시평생학습관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장애인 평생학습 관계자 45명이 참석했다. 복지관은 평생교육트렌드연구소 정시연 대표를 초청해 '2025 평생교육트렌드 분석과 강사의 자세 및 역할'을 주제로 심도 있는 강의와 현장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강의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변화 △초고령사회에서의 평생학습 방향성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 전략 등 2025년 평생학습의 핵심 흐름이 제시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유아교육·보육 전문인력 양성 협약 체결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6일 지역사회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및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유아교육 및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급변하는 보육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송정임 회장, 박정화 사무국장 및 임원진과 우병훈 총장을 비롯해 유아교육과 양시내 학과장, 김나립 교수, 이영주 교수가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장 맞춤형 영유아 교사



양성을 위한 취업 및 실습 지원 △유보통합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 △인적·물적 자원 연계 및 교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010-9842-2725	임실지사 010-9842-2725
심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전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858-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